

레슬리 앨런 박사, 에스겔, 강의 9,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 에스겔 18:1-32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에스겔서에 대한 Dr. Leslie Allen과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번 세션은 9회 '희망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에스겔 18:1-32.

지난번에 우리는 17장과 19장을 공부하고 18장을 생략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장과 절에 너무 익숙해서 한 구절이나 심지어 한 장에 집중할 경우 그것이 우리가 오용하는 참조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고 연속성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18장만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 내용을 17장의 맥락에서 분리해 보면 중요한 교훈을 간과하게 됩니다. 첫눈에 18장은 중단입니다.

17장과 19장에서 우리는 적어도 왕실 주제를 보았지만 18장에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18장이 논리적으로 1722년부터 24장까지를 기반으로 하는 고의적인 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장엄한 회복을 약속하는 다윗 왕권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왕권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계획의 일부입니다.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에스겔 사역의 두 번째 기간, 즉 에스겔이 593년부터 587년까지 7년 동안 부정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한 이후인 587년 이후의 긍정적인 기간에 속한다고 나는 제안했다.

그러한 메시지는 때때로 더 일찍 전달됩니다. 에스겔의 두 번째 기간의 메시지는 때때로 책의 앞 부분에 배치되며, 우리는 이미 그 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8장을 읽어보면 그것 역시 그러한 패턴에 들어맞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죽음과 삶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삶을 향한 길로서 회개를 요구합니다. 에스겔은 587년까지 예언해야 했던 필연적인 멸망의 메시지와는 아주 다른 곡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삶의 선택을 제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33장과 3장의 파수꾼

사역을 실천하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대신 포로들에게 경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17장의 마지막 구절 뒤에 18장을 두는 것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나는 두 개의 신약성경 본문을 비교함으로써 이를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두 번째 신약성경 참고 자료는 요한일서 3.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18장 '희망을 실천하는 삶, 미래의 희망을 실천하는 삶' 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17장 끝부분에 표현된 왕의 희망은 지금도 그 희망을 경험할 준비를 하면서 적절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도록 자극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가는 암묵적인 연결고리라고 믿습니다. 시편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8, 20, 21편을 보면 왕과 관련된 시편이 여러 편 나오는데,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창조와 언약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표준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토라에 대해 말합니다.

사실, 시편 19편의 후반부는 시편 18편의 일부를 발전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시편 18편의 20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왕의 적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러한 방식으로 왕의 도덕적 입장을 존중하시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자신의 삶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의 후반부는 시편 18편의 해당 부분의 언어를 많이 반영합니다.

그것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왕의 간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동일한 도덕적 입장을 취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개별 신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스겔 18장은 왕의 주제에서 벗어나 유배자들에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왕의 희망에 비추어 그들의 삶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방금 시편 19편 후반부에서 토라에 대한 강조를 언급했는데, 에스겔 18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약 시대에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제시된 표준은 토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말할 뿐만 아니라 포로들에게 토라의 교훈을 가르치는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유배자들이 새 생명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의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 좋은 삶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에스겔의 제사장 훈련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18장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제사장적 예언적 상호작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은 2절에서 포로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서 직면했던 구체적인 현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망명.

그들은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내용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관한 이 잠언을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가 신 포도를 먹었더니 아이들의 이가 시리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히브리어로 당신이 실제로 복수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이는 587년 이후의 일반적인 포로 집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부 율의 문학적 형태를 가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없거나 적어도 이것이 유배 공동체를 대표하는 복수형이라는 각주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땅을 잃은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슬로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로건은 은유였습니다.

신맛이 나는 음식을 먹으면 산이 치아를 불쾌하게 거칠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원인과 결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사람들, 두 세대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당신 대신 다른 사람이 숙취로 잠에서 깨어났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인은 당신에게 있지만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슬로건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망명자들은 그들의 추방과 추방으로 인한 모든 손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다. 이전 세대.

그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이것은 애가의 본문과 연결됩니다. 애가 5장 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없어졌으니 그들의 죄악을 우리가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가 5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서도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도 죄인이고, 지난 세대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메모는 여기 18장 2절의 슬로건에서 빠졌습니다.

열왕기를 통해 여호수아의 서사시를 읽으면, 자신들이 헌신해야 했던 하나님을 거부하는 부정적인 역사가 여러 세대에 걸쳐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뒷걸음질은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587년의 절정의 형벌을 겪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쌓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른 종류의 이전 형벌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 죄가 쌓이는 것을 말하면서 오히려 그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경적으로는 587년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잔재물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형벌하시는 때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와 그 이전의 책들은 각 세대가 차례로 죄를 짓고 있으며 심지어 마지막 세대도 죄를 짓고 있다고 매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과거 세대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일부였지만, 현 세대에서는 그들 역시 문제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가 5장 7절과 16절은 균형잡힌 이중 견해를 제시합니다. 세대를 초월하는 관점도 있고, 세대를 초월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는 모두 587의 의미를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서의 슬로건은 운명론적인 절망의 고리를 담고 있다. 또한 그것은 불공평하다는 암시와 함께 반항과 항의의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이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에스겔은 그의 예언 사역의 후반기에 그 절정의 심판을 넘어서 다가올 구원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수직적 연대는 587년에 끝났고, 이제 각 세대는 하나님 앞에 자기 발로 서서 새로운 출발을 제시받았습니다. 에스겔서 2기 사역에는 뭔가 극적으로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587년 이후에는 숙명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절망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항의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 슬로건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세대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그 신 포도를 스스로 먹을 정도로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유배세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전 세대를 비난하는 것은 목회적으로 매우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적 판단이라는 세대 간 원칙은 이제 끝났습니다. 587년에 끝났다.

그리고 587 이후 시대에는 세대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각 시대에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것도 오래된 원칙이었지만 516이 자신의 죄에서 587의 정의를 인정했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세대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 18장과 3절을 주목하십시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다음 4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4절의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직접 관계를

맺는 것처럼, 인격체로서의 부모와 인격체로서의 아이도 똑같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나와 관계합니다. . 그러므로 각 세대가 낡은 세대주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몫이지만, 그것은 그 낡은 세대교리 원칙과 작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는 우리가 이전 세대가 내린 선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배된 세대가 들어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의 영적인 동전의 양면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만이 죽을 것이다. 사람이 의인이 되어 법과 정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리라.

4절 끝부분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만이 죽습니다. 사람이 의인이 되어 법과 정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리라. 우리는 이 이중 진술을 하나 이상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에스겔은 옛 토라로 구성된 가르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서 우리는 4절의 가르침이 20절에서 선택되고 발전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20절에서 확장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자녀가 부모의 죄악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부모가 자녀의 죄악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토라의 본문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4장과 16절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음, 법적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는 일반적인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법적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죽이지 말며 부모를 위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니라 오직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에스겔은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법적 공식을 영적으로 다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중 진술의 전반부에서 죄를 짓는 사람만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의 소매 속에 또 다른 토라의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람이 옳은 일을 행하면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성경적 정당성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약성경은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키지니라

그렇게 하면 사람은 살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준에 따라 살아가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개의 토라 본문, 즉 에스겔이 포로 세대가 고려해야 할 도덕적 책임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암묵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구약 본문입니다.

삶이나 죽음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이중 진술을 고려할 때 살펴보아야 할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18장이 587년 이후 에스겔 사역의 두 번째 기간에 속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말하는 37장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해석을 읽을 때 부활은 땅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은유입니다.

유배 이후의 새로운 삶, 죽음과도 같은 유배 경험을 거쳐 고국으로 돌아옴. 그러므로 에스겔 2기 목회 기간에 산다는 것은 그 땅으로 돌아와서 오는 축복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8장에서는 모든 유배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좋은 생활 방식을 채택하여 다가올 희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입니다.

그들은 망명 중에도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곧 20장에서 우리는 에스겔이 유배자들이 그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별 과정을 마련하실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배자들 가운데 반역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에스겔 20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민족들의 광야로 인도하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길에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리라.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직원 밑으로 지나가게 해줄게요. 나는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들과 나에게 범법하는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나그네 땅에서는 인도하여 낼 것이나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체크포인트, 선별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든 목자에 대한 은유가 있습니다. 양떼를 통과시키지만, 어-어, 아니, 당신은 뒤로 물러서고, 당신은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주차장에 갈 때 나무 막대가 있고 그것이 올라가서 통과하기 전에 특정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거기에 있으면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정된 표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망명에서 돌아오는 것은 자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배지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비슷한 메시지를 가졌습니다. 제가 13장에서 포로들에 대한 작은 J로 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처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출교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기 사망하여 결코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14장 8절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입으로는 예배를 드렸지만 뒤에서는 이교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14:8 내가 그들을 내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므로 그들은 사실상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삶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이 땅에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미래에 맞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조만간 유배 생활을 하며
 그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에 관한 이 말에는 일종의 종말론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어, 18장으로 돌아가서 6절부터 8절까지는 의롭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된 생명을 계속 상속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예를 제시합니다. 훑어보면, 에스겔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배되기
 전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바른 생활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했던
 오래된 제사장 목록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다섯
 가지 유형의 범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6절 전반부에는 종교적인 부부가
 나옵니다.

만일 그가 산에서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면
 이것은 분명히 정통 유대교인들이 방문하여 예배하려고 하지 않았던 산당에
 대한 포로 이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형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 이교주의,
 노골적인 이교주의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쌍은 16절 후반부인데 성적인 쌍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에게 접근하지 아니하며 간음과 월경 중 성교가
 언급되며 두 행위 모두 더러운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는 것은 여러분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쌍인 7절 전반부에서는
 일반적인 진술을 제시합니다. 우선, 누구도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두 가지 예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전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억압의 예입니다.

그들은 빚을 갚은 후에도 담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나오는 네 번째 쌍은 긍정적이고 자선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시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자선입니다. 8절 전반부에 나오는 마지막 쌍은 또 다른 형태의 자선입니다. 비록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급이나 발생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실행합니다. 예. 선지급이나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출을 자선 행위로 여겼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궁핍한 사람들이 있거나 빵 한 덩이나 옷 한 벌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대출로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자선에 대한 생각을 망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선지급 이자를 받고 100달러를 주겠다고 말했다면, 사실은 95달러를 주고 5달러를 이자로 계산하겠습니다. 또는 발생한 이자를 "100달러를 주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110달러를 돌려받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자도 없고, 아니요.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은 자선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신명기가 말하는 것의 기초가 되는 토라 본문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내용은 신명기 19절에 있습니다.

너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에게 꾸어주면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돈에 대한 이자, 준비금에 대한 이자,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것은 자선 행위입니다.

따라서 거래에서 아무것도 얻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선의 원리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준 돈 외에는 아무것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시간 동안 그 돈의 사용을 포기하고 그 후에 그것을 다시 가져오지만 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인 자선 행위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거래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금융 위기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8절 후반부는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죄악에서 손을 거두시며 다투는 자들 사이에 참된 정의를 시행하시느니라. 그리고 9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제시합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삼가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자라. 그래서 그 옛 언약의 기준은 587년에 의해 유지되어야 했고, 또한 597명의 포로들에 의해서도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관참은.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토라의 선한 삶의 표준을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이라는 하나님의 추가적인 축복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재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책임감이 있으며 에스겔이 포로들에게 가져오는 도전입니다. 2절에서 슬로건이 말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3절에서 그는 문제의 반대편으로 돌아섭니다.

그는 가족의 용어로, 세대를 초월한 용어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좋은 아버지의 나쁜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떤 선함도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발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에 따르면 영적인 책임은 죽음으로 이어질 뿐이며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10장부터 13장까지 그 제사장의 목록을 다시 살펴보지만 이제는 거꾸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5절은 여전히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대로 사는 자가 살리라.

그리고 그 반대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세대는 자신의 미덕과 악덕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도전이자 자극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나쁜 아들이 좋은 손자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한 손자는 자기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을 한탄하고 한탄할 것이며, 자신이 나쁜 생활이라는 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은 그의 나쁜 아버지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나오는 운명론은 불필요한 것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그 손자, 그 좋은 손자, 나쁜 아버지의 그 좋은 아들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방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었고, 그들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운명론의 심리적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19절과 20절에서 선지자는 이의를 언급함으로써 이 교훈을 강화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들이 정당한 일을 하고 조심하였거늘 어찌하여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리고 대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선 그게 불만이에요.

유배자들은 2절에 나오는 슬로건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삶의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파괴적인 힘으로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4, 16장은 각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새로운 의미로 다시 호소됩니다.

하나님은 각 세대를 차례로 개별적으로 보시며, 각 세대에는 승자가 될 수도 있고 패자가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강화됩니다. 에스겔은 단지 "아니요, 당신 말이 맞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은 틀렸고, 이것이 내가 말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슬로건을 끝내지 않았고 21절에서 다른 관점에서 이 슬로건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는 4절부터 19절까지 가면서 이 슬로건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니요, 추방자들은 더 이상 이전 세대의 선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유배는 심판의 연장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희망으로 가는 문이기도 했습니다.

유배 기간 동안에도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유배자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선택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둔 나쁜 선택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초대받았으며, 그러면 그들 역시 유배를 넘어 새로운 삶을 향한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1절의 핵심입니다. 만일 악인이 만일 자기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공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행한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가 이전에 슬로건에 대해 말했던 것에서 논리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개별 망명자들의 삶의 단계에 다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쁜 선택을 했다고 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이 장의 전반부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것들은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제안되었습니다. 각 세대가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새로운 시작을 제시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들 자신의 삶에서 전환점을 가질 수

있고 다시 한 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과거일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종류의 복음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택한 유배자들은 이제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초대받았으며, 그러면 그들 역시 유배를 넘어 새로운 삶을 향한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일을 지나간 일로 여기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생존권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권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에스겔은 23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감정적인 메모로 논쟁을 설득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자주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의 진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내가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옳은 일을 행하고 너희 생활에서 나를 존경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가 21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온 변화의 문제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에스겔에게 와서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해 좋은 소식을 받았 습니까?”라고 말했던 외적으로 존경받는 장로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애착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내기를 헤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교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교 신들과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야훼를 숭배하는 것은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것을 보고 당신에게서 어떤 메시지도 말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귀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이교 숭배에도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에스겔은 영적 성실함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느님의 백성인 것처럼 가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12장에서 바울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한 타락은 이곳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그들이 이전에 충성했던 것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의 장로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14:8에서 말한 대로 파문당하고 죽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1-22장에서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 앞에 좋은 신분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때 끊어진 동일한 불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로마서 11-22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주목하십시오.

넘어진 자들에게는 가혹함을 베푸시되 너희가 그의 인자하심에 거하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거기에 경고가 있습니다.

이 경고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5절에서 에스겔은 다시 한 번 야유를 받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주님의 길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간에 이런 종류의 전환 측면의 신학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고, 의인이 계속해서 의를 행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음, 이것은 당신이 587년 이전에 말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옛 추방 메시지는 불변의 운명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태도의 변화, 즉 하나님이 과거의 불충성과 과거의 충성을 모두 잊어버리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현재의 인간 행동이 나쁜 행동을 쉽게 압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들의 반대를 신학적인 연막으로 일축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거부한다는 숨겨진 계획을 위한 전선입니다.

유배자들 사이에는 위험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추방의 심판으로 이어진 나쁜 옛 방식의 지속이거나. 또는 일부의 경우 다수에 편입되어 다원주의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비한 믿음.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빌론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에스겔은 죽음이 존재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은 앞서 진술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을 이제 30절에서 초대로 다시 언급합니다.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악이 당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버리라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 31년 말에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더 나은 생활 방식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2년 안에 하나님의 열정적이고 환영하는 마음을 위한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사람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리하면 돌이켜 살리라

그래서 21절에 나오는 돌이켜 살겠다는 진술, 돌이켜서 반드시 산다는 진술은 이 직접적인 초대, 즉 포로들을 향한 일종의 변경된 부르심으로 요약됩니다. 그럼 돌려서 살아라.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인간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성취. 그리고 이는 망명자들에게 스스로 자력으로 일어서라는 요청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에스겔은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31절 중간에 그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두 번째 시기의 사역 언어입니다.

에스겔 사역의 첫 번째 기간이나 두 번째 기간에 18장이 어디에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면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36장 26절의 하나님의 약속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넣어 주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내 율례를 따르게 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36장의 문맥에서 언급된 땅으로 돌아갈 희망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11장에서 이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11장과 19절, 20절에서도 다시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다른 본문에서는 새 마음을 주고 그 안에 새 영을 넣어 주리라 이는 그들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것은 36장과 11장의 미래 약속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그들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언약 표준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18장의 끝 부분에서는 포로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땅과 관련된 약속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인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2절의 타락한 슬로건에 대한 궁극적이고 가장 만족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18장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 중 하나입니다.

이는 에스겔을 좋은 소식의 선지자이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경고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준을 재확인한 제사장의 교사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를 도전과 확신을 모두 설교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설교자로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손길을 공유하고 유배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갈망하는 목회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에스겔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대한 Dr. Leslie Allen과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번 세션은 9회 '희망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에스겔 18:1-32.